악취 제거로 시민불편 없앤다

전주시, 악취발생 저감 목표로 한 민원 대응계획 추진
산업단지 · 축사농가 등 종합상황실 운영 집중관리키로

전주시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폐수와 음폐수, 축산분료, 생활하수관 등 각 분야별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매년 여름에는 열대야로 대기 중의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 평소보다 악취가 심하게 느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6월~9월까지 악취민원 특별관리기간을 정해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여름철 악취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연중 상시 악취민원 저감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 즉시대응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 지역별 악취민원에 총괄 대응하 종합상황실 운영과 여름철(6월~9월) 악취 집중관리-특별관리기간 설정과 민원대응체계 강화이다.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는 전주와 김제, 완주지역 축사시설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10,000리터를 16개 가축농가에 보급했다. 산업단지지역에 대한 공단지역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종합대책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음폐수를 처리하는 관로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주민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심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의 철저한 이행 지도 △전주시내 주변 농경지의 밭작물 경작자에 대한 퇴비살포 사전 안내교육 등도 추진한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지역에는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악취탈취 차량을 운영한다. 또한, 오는 8월중에는 기상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악취예방 · 저감을 위한 '다울마당'도 구성 · 운영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악취민원 대응계획 추진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마련,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다다익선, 장애인일자리 확대 총력

전주시,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 회의
중증장애인 위한 신규일자리 사업 확대

전주시는 23일 시 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일자리 다울마당을 개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와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울마당 위원들은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온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취업이 매우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일자리사업 확대방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축,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창출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는 최근 중증장애인 7명이 바리스타로 참여중인 시청 로비 '꿈앤카페'와 완산 · 덕진구청 로비 'I got everything'을 시범모델 사업장으로 준비해왔다.

임예정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장은 "카페를 위탁운영 하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지만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책임감 있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유지를 위해 매출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우석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일자리 추진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후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개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활동에 다울마당 위원으로서 일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한 가정과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며 "다울마당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교육, 취업 연계, 일자리 제공 등 힘든 약자를 항상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유치에 성공한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리모델링되는 12월 이후에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효철 기자

'지역문화융성 관광창업의 기회로'

실무중심 관광창업 지원 관광아카데미 전주서 첫 개강

지역문화관광 창업가 양성을 위한 관광아카데미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광창업가를 양성하고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기회 발굴 과 사업아이템 창출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전주대 자유관 116호실에서 예비 관광창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여행 10선 관광아카데미 개강식을 갖고 8월1일까지 총 8일에 걸쳐 관광창업에 관한 실무위주의 교육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역 관광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창업을 지원하는 관광아카데미가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마여행 10선 관광아카데미는 문윤걸 예원예술대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를 책임강사로 하여 전국 유명 코칭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8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어진다.

이번 관광아카데미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전북문화컨텐츠연구소가 주관하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역량을 진단하고 창업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교육은 물론, 개인별 전담코치제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역량진단과 창업동기부여,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기회 찾기, 문제해결을 통한 사업기회 찾기, 소비자 분석을 통한 사업컨셉 개발, 사업스토리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효철 기자

문윤걸 예원예술대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가 23일 전주대에서 진행된 관광아카데미에서 관광창업에 관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집중'

28일까지 지역7개 업체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으로 파견
싱가포르와 베트남 무역관 방문해 해외바이어 상담 · 시장 조사

독일형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활용해 전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동남아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하는 등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KOTRA지원단과 공동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나비스 등 7개 업체를 '2018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했다.

이들 기업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호치민의 2개 무역관을 방문해 해외바이어 상담 · 발굴 및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해외시장 조사비용과 바이어 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박람회 단체 · 개별 참가 지원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지사화 참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올해부터는 전담반을 운영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최은자 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작지만 세계에서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지원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어은지구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

덕진구, 토지의 경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기대
토지현황 · 지적재조사측량 일정 · 협조사항 전달

전주시 덕진구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어은지구(9만6,431㎡)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해 토지소유자 305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어은경로당에서 진행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측량 · 조사 계획 등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측량 입회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경계점표지 관리에 대한 협조사항 전달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 측량하여 기존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실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5월 1일 측량 · 조사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를 선정했으며 측량완료 후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해 내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간담회 열어

개인용 텀블러 지참한 간담회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앞장
이철수 완산구청장, 서무담당 직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일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 발맞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테마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미리 개인용 텀블러를 준비하여 구청 내 까페에서 음료를 받아왔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의견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토의를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인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일회용 품 소진시 추가구매를 자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다짐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 먼저 앞장서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여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는 이번달 초부터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2개를 구청 출입문 2개소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송효철 기자